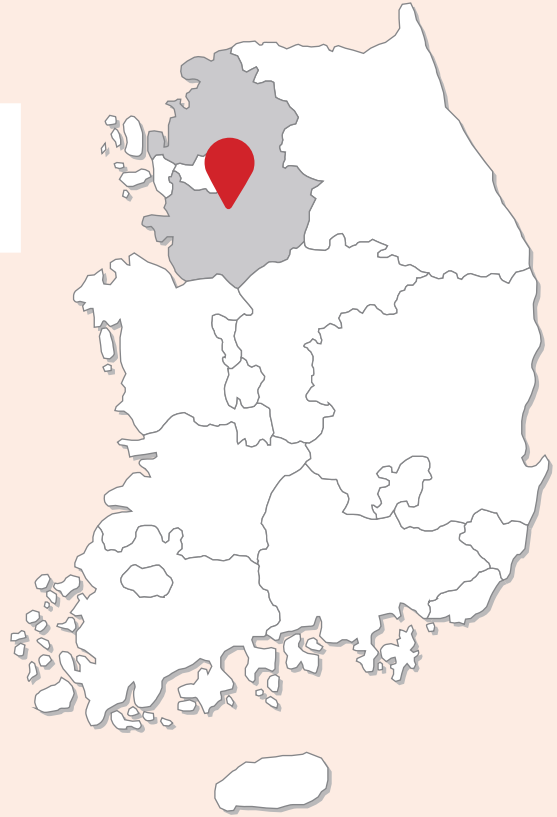


“단행본 자료 곁에 두고 활용하기 유용해요”

거주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자녀	중3, 고2
구독 기간	1년 2개월



안녕하세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셨나요?

다른 학습 잡지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알게 됐어요. 마침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큰아이 때문에 교육 정보에 대한 갈증이 있던 터라 제목부터 솔깃해 구독했습니다.

<내일교육>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대체로 만족하며 읽고 있어요. 큰아이가 고2가 됐지만 입시가 낫선 보통의 학부모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불안할 때가 많아요. 입시 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수능 경향도 바뀌었다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외당지 않아 답답할 때도 많아요. <내일교육>에서 이슈 중심으로 풀어낸 기사를 읽다 보면 ‘아하~’ 싶을 때가 있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수시 합격생이 들려주는 학교 생활 얘기를 읽다가 우리 아이 학생부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있고요.

독자에게
물는다

취재 윤소영 리포터 yoonsy@naeil.com

무엇보다 필요한 내용만 쓱쓱 뽑아 단행본으로 엮어놓은 <교과 연계 적합書>나 <선택 과목 가이드북> <수시 합격생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북> 등은 곁에 두고 틈틈이 참고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요?

큰아이가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실기에 매진하지는 않지만 예체능 계열로 진학하려는 마음도 있고요. 최근에 여러 대학들에 비실기전형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은 학생부에서 전공 관련 탐구 활동을 보여줘야 하는데 미술이나 예술 계열은 교과와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요. 이를테면 '미술 활동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예체능 계열은 상대적으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아 막막합니다. 최상위권이라면 걱정이 덜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요. 예체능 계열 진학 정보도 틈틈이 전해주시기 바라요. @

Reporter's A/S

미술과 체육 등 예체능 계열 입시 정보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4월부터 예체능 계열 진학 정보를 담은 칼럼을 월 1회 연재하고 있습니다. 미대 입시의 경우 매월 첫 번째 호에 게재되는 '김동욱 교사의 월간 미대 입시 스케치'를 눈여겨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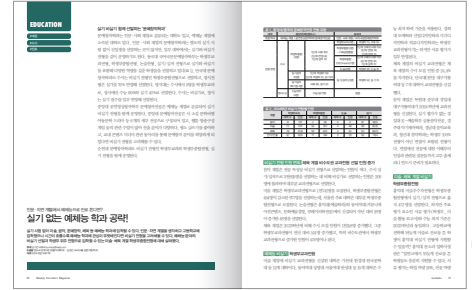


본지 1132호 '김동욱 교사의 월간 미대 입시 스케치 1, 미술 계열 대입의 특징과 대비 전략' 기사 참조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인문·자연 계열에서 예체능으로 진로 튼다면?

실기 없는 예체능 학과 공략

"실기 없는 예체능 계열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 일찍 한 분야에만 몰두해 다른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학생부를 잘 관리하면 두루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 싶어요. 다양한 융합 전공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중위권을 위한 전문대학 유망 학과
② 반려동물학과

'펫코노미' 열풍에 국가자격증까지, 산업 성장에 인기 급상승

"요즘 반려동물은 가족이에요. 수의학과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전공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관련 자격증도 많더라고요. 전공이 주로 전문대학에만 개설된 것 같아 아쉽지만 기사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